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표리부동한 썩어빠진 국회의원들

'인생'이라는 길을 걷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다. 아 니 늘 일어나는 일인지도 모른다. 뭘 하나를 선택하면 뭘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모두 다 가질 수는 없다. 이를 경제학적 용어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라 한다.

기회비용은 하나의 재화를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포기한 것들 중 가장 큰 것의 가치를 말한다. 즉 포기된 재화의 대체기회 평가량을 뜻한다.

어떤 생산물의 비용, 그 생산으로 단념한 다른 생산기회의 희생을 초월한 사람이 20세기 초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비저(Friedrich von Wieser)이다.

물론 그 이전부터 기회비용의 의미는 존재했다. 단지 개념화되지만 않았을 뿐

이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선택은 필수적이다.

때문에 포기를 수반하지 않는 선택은 없다. 내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음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선택의 영역인지도 모른다. 농장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맡고 쉬운 언어로 써내려간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

그의 '가지 않은 길'에서도 선택의 문제가 여실히 나타난다. "단풍 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수풀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 생각했지요. 풀이 무성하고 발걸음 부러

는 듯했으니깐요. 그 길로 걸다 보면 지나간 자취가 두 길을 거의 같도록 하겠지만요.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아, 나는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 놓았습니다. 갈이탄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만 한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여기면서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지며 이야 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밟을수록 감동을 주는 시다.

그렇다. 우리 누구나 선택을 해야 한다. 지금 시중에서는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문제로 난리들이다. 엄청난 특수활동비가 영수증 하나도 없이 쓰여 졌다고 한다. 심지어는 누구에게 줬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놀랄 일이다.

자신만은 지고지순한 듯 온갖 호통을 다 치면서 살아가는 국회의원들 뒤에서는 이러 추잡한 짓거리들을 해왔던 것이다. 지금까지 똥 똌은 개가 맑고 고운 눈동자 가진 어린 아이 나무리는 격이었다. 이 잣대로 재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그 일족들을 단죄할 수 있었는가.

여자가 다 마찬가지다. 물론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용도를 정당하게 밝히고 써라. 영수증도 당당하게 제출하고 숨길 필요가 없잖은가.

열심히 일하면서 쓴다면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 더욱 그렇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작태는 절대로 안 된다. 아직도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어하는 것 같다.

명예도, 권력도, 돈도, 때로는 일부 정치인들의 성폭력행위도 하지만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 돈이나 음습함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직을 선택하든지. 자금의 상황이 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만약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고 싶으면 유리알처럼 맑아라. 현대인들은 모두 다 능력자다. 단지 국회의원직을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다. 썩어빠진 국회의원들이!

社說

여름 '음주' 물놀이 안된다

여름 휴가철에 계곡 등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물놀이 익사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음주인 것으로 확인됐다니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5년(2013년~2017년)간 여름철(7월~8월) 휴가 기간 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물놀이 익사사고 6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 후 물놀이로 인한 익사가 5건(83%)으로 나타났다. 15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7월에는 설악산 백담계곡에서 52살 남성이 일행과 산행 중에 술을 마시고 계곡에 들어갔다가 익사했다. 오대산 국립공원 내 소금강계곡에서는 2013년과 2014년에 연이어 음주로 인한 익사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급주는 물론이고 사전 준비운동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특히,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해 자칫 물살에 휩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물놀이는 반드시 계곡 가장자리 주변에서 해야 한다.

해변(해수욕장)의 경우 조수 웅덩이나 이안류, 바다 갈림길 등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태안 해안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주요 계곡과 해변 173곳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 지역에는 안전사고 취약시간 대인 오후에 순찰 인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음주 후 물놀이를 하지 않는 것과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온열환자 예방수칙 중요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 폭염일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건강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부터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폭염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12~17시)에는 장시간 야외활동이나 논·밭 작업을 자제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 만성 질환자, 어린이 및 야외 근로자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낮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활동이나 작업시에는 시원한 장소에서 자주 휴식하며 가볍고 헐렁한 옷을 입고 평소보다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하고 헝기증,

두통, 메스꺼움, 근육경련 등이 상증상을 느낄 경우에는 빨리 몸을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즉시 119로 신고하여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C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적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 35°C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적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우리 모두 일기예보 등 폭염 특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폭염은 한 여름의 더위 정도가 아니라 노출되면 무서운 질병이 될 수도 있으므로 우리 모두 알맞게 생각하지 말고 위에 강조한 폭염 예방 행동요령과 건강수칙 준수 등을 통해 건강한 여름이 될 수 있도록 하자.

류필상 / 영광소방서 합평안전센터

여름철 벌 쏘임 주의 생활화 해야

여름의 되면서 벌집제거 출동이 생겨나고 있다.

시민들이 벌을 발견해 직접 제거하려 벌에 쏘여 부상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119에 신고하여 주길 당부 드린다.

벌에 쏘였을 때는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려운 피부 발진을 동반하여 기도와 호흡, 순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여러 번 쏘여 치료가 늦거나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호흡곤란, 경련, 의식 저하, 심하게는 진성성 과민반응이 나타나 생명이 위협해 질 수 있다.

벌에 쏘였을 때는 쏘인 부위를 흐르는 물에 비누로 가볍게 씻고, 붓기를 최소화하고 독성물질 흡수 지연을 위해 얼음팩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다.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은 개인에 따라 다르나 목이 붓거나 기관지가 좁아져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특징적인 피부 증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병원으로 내원하여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게 되면 증상이 회복되게 된다.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은 해당 반응을 일으키게 된 원인 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지만, 노출이 되었을 시 지체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것을 권하며, 원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게 예방을 해야 하겠다.

권동주 / 무안소방서 민원주임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陸 階 納 陸

오를 승
섬돌 계
들일 남
대궐의섬돌 폐

陸 階 納 陸

▷ 뜻 : 문무(文武) 백관(百官)이 계단(階段)을 올라 임금께 납폐(納폐)하는 절차(節次)임.

湖南新聞 (62) 224-5800, (62) 222-5547, (62) 222-5548, (62) 222-5544.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대표전화: (062) 224-5800. 발행·편집인: 김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지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